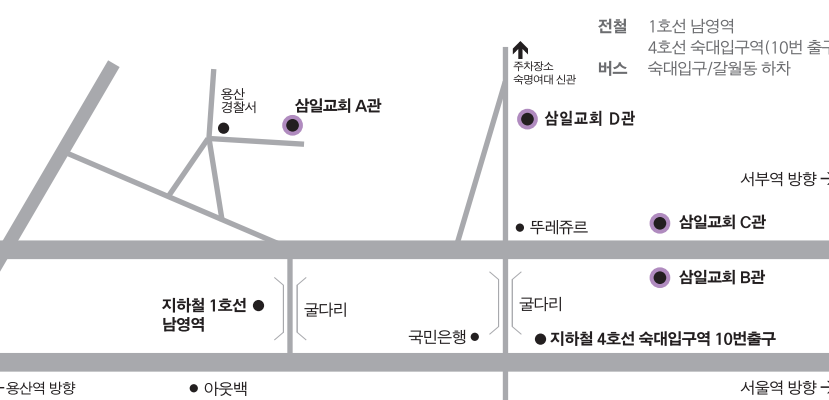


집회 / 교회 안내

집회	시간	장소	집회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오전 10:30 3부: 오전 12:00 4부: 오후 1:30 5부: 오후 3:00	삼일교회 B관 2층 (영어통역 3층) (중국어통역 3층) (5부 일본어통역 3층)	영아부예배	1부: 오전 10:30 (1~3세) 2부: 오후 1:30	4층 영아부실
젊은이예배	6부: 오후 4:30 7부: 오후 6:00	삼일교회B관 2층 (영어통역 3층)	유아부예배	오전 10:20 오후 1:20	7층 유아부실
주일 저녁예배	오후 7:45		유치부예배	오전 10:10 (6,7세)	7층 중예배실
수요일예배	1부: 오후 5:00 2부: 오후 7:30	삼일교회 B관 2층	유년부예배	오전 10:10	4층 유년부실
금요일예배	오후 10:00		초등부예배	오전 10:10	4층 초등부실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00 2부: 오전 6:30		소년부예배	오전 10:10	C관 5층
			중등부예배	오전 11:00	C관 4층
			고등부예배	오전 11:00	A관대예배실
			새가족부	주일 낮 예배직후	C관 1층 새가족부실
			리더교육	토 오후 5:00	삼일교회 B관

월예배 봉사위원	7월 대표 기도 순서			봉헌위원	
	1부	2부	3부	1부	박동선 집사
	1주 나원주 장로	이광영 장로	박신찬 장로	2부	김희석 집사
	2주 김경준 집사	주병욱 집사	임두호 집사	3부	장구경 집사
	3주 이대규 장로	나원주 장로	이광영 장로	4부	장석면 집사
	4주 이윤석 집사	주병욱 집사	이수관 집사	5부	이수관 집사
				저녁예배	주병욱 집사

교회안내		
B관 베다니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04 (청파동1가 삼일교회 교육관)	Tel 02.713.2660 Fax 02.3273.5297	
A관 아브라함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89길 18~19	Tel 02.711.4328	
C관 써클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05	Tel 02.703.4001 Fax 02.711.3126	
D관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47길 34~2		
삼일기도원,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철마산로 336~10	Tel 031.592.8385	



섬기는 분들

담당목사	송태근	장로	이광영 이대규 박신찬 나원주
행정	강종욱목사 010-2546-7494	지휘자/반주자	A 그룹 윤원준/ 장성개 B 그룹 이진아/ 김상원 C 그룹 이근영/ 이다정 D 그룹 박운진/ 김다해라 E 그룹 권경란/ 하민경 땅끝 박사론/ 장홍주 하늘 최대승/ 홍예리 저녁 장구경/ 박신영 수요 1 김원정/ 김주휘 수요 2 정광민/유원미
새가족부	엄영선전도사 010-9213-0506		
주일학교	교육위원장 우상현목사 010-2405-4525 영아부 박소금전도사 010-8431-3379 유아부 객연미전도사 010-4529-0426 유치부 유한미전도사 010-9282-9784 유년부 최강철전도사 010-9443-0753 초등부 서범준목사 010-4016-6428 소년부 이성균전도사 010-3101-1673 중등부 이규원전도사 010-2771-1464 고등부 박수영전도사 010-2656-4584 학원선교부 순정환전도사 010-2871-8480		

대학청년부	1진	김현욱강도사 010-9441-8401		행정실장 전 산 사무행정 위 철 사무행정 김진경 일반사무 이선주 (FAX : 3273-5297)	황세원 010-4233-0688 박성순 010-6273-0072 송요해 010-2001-4458 위 철 010-3437-7939 전택산 010-3861-4521 김진경 010-3056-5901 이선주 010-6449-2241 (FAX : 3273-5297)
	2진	이홍우강도사 010-9659-3591		영 상	정명현 010-9072-3745 최용준 010-8665-2603
	3진	김종철목사 010-4499-6266		음 향	조홍규 010-3776-4175
	4진	이용희전도사 010-6417-4448		목 앙 실	김정선 070-4264-9302 (FAX : 070-8884-3125)
	5진	이익주목사 010-8769-0191			
	6진	전영민목사 010-4855-5838			
	7진	이은준목사 010-2396-5253			
	8진	김정호전도사 010-8264-0219			
	9진	양재현목사 010-5473-0698			
	10진	김성태목사 010-2241-1950			
	11진	원해욱목사 010-9078-1425	A관 관리	남재희 010-2449-3593	
	12진	조시환전도사 010-5555-4031	C관 관리	이상일 016-9444-2996	
	13진	김정만목사 010-2702-8039	D관 관리	진별이 010-3955-9138	
	14진	고석창목사 010-2834-7697	기 도 원	이대규 010-8869-1702	
	15진	최성근목사 010-3444-8833	식당관리	이정희 010-4109-1489	
	16진	이지혜전도사 010-5061-2880	경 비 실	070-4264-9350	
	17진	문승진목사 010-9428-9645			
	18진	전종국목사 010-2392-8061			
	19진	이은희전도사 010-8940-0241	기게실	전 기 장준호 010-8640-9514	
	20진	김수훈전도사 010-4570-2556	설 비 설 비 설 비	남상준 010-4931-3593 이승진 010-7770-2196 전진무 010-9769-0014 (FAX : 070-8848-3125)	

신혼진	1진	강병희목사 010-9903-7198			
	2진	이희석목사 010-9166-5991			
장년진	1진	박두진목사 010-7310-3103	선교사	전병두 일본 81-90-8116-9372	
	2진	임형진목사 010-9184-3156	박미진 대만 886-912-203-824		
	3진	안영민목사 010-3243-3559	안성권 미얀마 010-2251-3749		
	4진	남수호목사 010-4190-0459			
			기관선교	학원복음화협의회 한국선교동원가네트웍	
해외선교부		신용길목사 010-5113-9936			
			국내선교	이광현(영산교회) 이우근(제주토산교회)	
P.O.P		권순환강도사 010-3036-1540			
			해외선교	신홍식(태국) 정운진(인·방·파) 오**(대만) 이영숙(일본) 윌리엄김(동아시아) 이동현(미얀마) 임선희(나미비아) 남섬김(브국)	

2013 Summer Mission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행 2:42

주일 1~5부 예배	설교 송태근목사(사회1~3부: 이익주목사, 4,5부: 고석창목사) 본문 행 2:37-42 제목 사도행전강해(5) “우리가 어떻게 할까?” 헌신기도 1부 김경준 집사 2부 주병욱 집사 3부 임두호 집사
------------	---

주일 젊은이예배	설교 전영민목사 본문 벰전 1:3-12 제목 “나의 미래와 현재에 대한 대답”
----------	---

주일 저녁예배	설교 송태근목사(사회: 신용길목사) 본문 호 13:1-15 제목 호세아강해(16) “자기를 높인 죄”
---------	--

수요일예배	설교 송태근 목사(사회: 이희석목사) 본문 고전 10:23-33 제목 고린도전서강해(21)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인가?”
-------	---

금요일예배	설교 우상현목사
-------	----------

새벽기도회	설교 월: 김중철목사/ 수: 전종국목사 화, 목, 금(‘신명기 강해’): 송태근목사
-------	--

Samil Church

저 수 지 교 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삼일교회

담임목사 송 태 근

금주의 칼럼

사도행전강해 4 “오순절과 교회” (행2:1~7)

구약의 맥추절은 보리의 첫 열매를 거두는 날로서 유월절 이후 7주가 지난 다음 날입니다. 그 기간은 어린 양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제하며, 맥추감사 주일은 부활을 기점으로 성령님이 오실 것을 예고 한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오순절은 구약의 맥추감사 주일이며 지상의 신약교회 탄생의 생일이 됩니다. 새로운 공동체의 발원과 교회의 출발이 알려지는 생일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교회는 말씀과 성령의 통치로 증인되어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왜 성령님이 교회 탄생과 함께 공동체에 임하셨을까요. 성령님께서 오신 목적은 첫 번째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두 번째로 영광스러 운 하나님의 경영을 함께 하시려는 부름과 초대 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살펴볼 세 번째 중요한 목적은 생명 공동체의 탄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되었습니다.(창2:7) 우리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죄와 타락에 빠진 인생들이 육신이 되어 영적으로 죽어버린 존재가 된 것입니다.(창6:1-3)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 비상한 경영과 수단을 강구하십니다.(욥2:27-30) 말세에 인생들에게 예수님의 영을 부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숨 쉬는 두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셔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이 죄에 빠져 육체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두 번째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고 파송하십니다.(요20:20-22) 창조주 하나님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을 내쉬셔서, 끊어졌던 육체가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살려내는 것입니다. 한 번 오신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누구든지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순절은 죽었던 영혼들에게 새로운 생명이 부어지는 사건입니다.

Q.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시고 완성하시는 과정을 말씀을 확인하며 살펴봅시다.(창2:7, 창6:1-3, 욥2:27-30, 요20:20-22) 예수님은 두 번째 숨을 내쉬며 무엇을 받기를 말씀하십니까?(요20:22)

교회 공동체의 탄생에서 나타난 첫 번째 sign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입니다.(행2:1-2) 엘리야가 가나안 종교의 열광주의에 빠져 서서히 말씀의 본질에서 떠나면서 이세벨의 불호령 앞에 낙심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가 로렘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떡과 물을 먹이시며, 호렘산 굴 앞에 세우고 보이시며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은 불, 바람, 지진이 아닌 세미한 소리였습니다. 이 소리는 원문으로 ‘신이 돌을 찌는 소리’라는 뜻으로 모세가 호렘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이 친히 쓰신 돌판의 경우와 같습니다. 즉 이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이끄는 동력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지배되어 있고 통치되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두 번째 외적 사건은 불입니다.(행2:3)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에 불기둥이 있었습니다.(출14:24) 또한 광야에서 떠도는 모세에게 나타난 것도 불꽃이었습니다.(출3:2)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교회에 절대로 사조적이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통치하심만이 나타나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탄생의 세 번째 현상으로 ‘난 곳 방언’이 나타납니다.(행2:4-11) 제자들의 설교가 다른 나라 말로 들게 된 것입니다. 언어의 혼잡은 바벨탑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바벨탑은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으로 인한 흠여짐을 면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교만한 역사를 멈추기 위해 모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그 때 이후 혼잡했던 언어가 교회가 탄생할 때 난 곳 방언의 역사로 통일됩니다. 언어의 통일을 통한 하나님의 지상교회의 mission은 첫째, 복음은 모든 민족의 것이므로, 그 사명을 새롭게 태어난 교회에 맡기는 것입니다. 마땅히 죽어 멸망당할 인생들에 대해 증인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둘째는 언어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서 소통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먼저 다가가서 소통해야 합니다.

Q. 교회 공동체의 탄생에서 나타난 외적 현상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행2:1-2), 불(행2:3), 난 곳 방언(행2:4-11)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은 직접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 하시는가. 우리를 단련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직접 하실 수 있지만 교회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엡2:20-22) 성령님이 오셔서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성령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중심이 되어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Q. 왜 성령님은 사명을 직접 감당하지 않으시고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까?(엡2:20-22)

